



보도시점 2026. 8. 14.(금) 13:30 배포 2026. 8. 14.(금) 11:00

홈플러스 영업 재개 상황과 근로자, 중소 협력업체 지원실적 점검

-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(TF) 회의 개최
- 「홈플러스 근로자·협력업체 지원방안」 이행상황 등 점검

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8.14일(금) 13:30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(TF) 회의*를 개최해 홈플러스 영업 재개 상황과 그간의 근로자·협력업체 지원실적을 점검하였다.

* 참석 : 재경부(차관보 주재), 산업부, 노동부, 중기부, 금융위, 금감원

홈플러스는 8.5일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확보한 2,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을 체불임금 지불 및 영업 준비에 활용했으며, 8.7일 임시 개장 후 8.13일 67개 점포에서营业을 정식 재개해 운영 중이다.

그간 근로자·협력업체 지원현황을 점검한 결과,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이후('25.3.4~'26.8.12일) 실업급여·대지급금 24,648건 359억원, 융자금(임금 체불 생계비용자,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) 9,091건 419억원 등을 근로자에게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.

협력업체에는 소진공·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277건 116억원을 공급하는 한편, 은행권에서도 만기연장·상환유예 8,167건 5.4조원 및 신규긴급자금 대출 121건 309억원을 제공했다(은행권 지원은 '25.3.4~'26.8.7일 기준). 또한, 신보(위기대응 특례 보증)·기보(긴급경영안정보증)는 「홈플러스 근로자·협력업체 지원방안」 발표 이후('26.7.3~8.12일) 70건 484억원 규모의 보증을 협력업체에 지원했다.

근로자·협력업체 지원 실적('25.3.4~'26.8.12일)

근로자		임금체불 대지급금	실업급여	임금체불 생계비용자	생활안정자금 융자	취업지원	심리안정 취업역량 강화
	지원건수(건)	6	24,642	8,960	131	6,055 ¹⁾	444 ¹⁾
	지원액(억원)	0.5	358	412	7		
협력업체		긴급경영안정자금		은행권 지원 ²⁾		보증지원 ³⁾	
		소진공	중진공	만기연장·상환유예	신규 대출	신보	기보
	지원건수(건)	273	4	8,167	121	65	5
	지원액(억원)	102	14	54,431	309	467	17

1) '26.6월말 기준 / 2) '25.3.4~'26.8.7일 기준 / 3) 회생절차 폐지('26.7.3일) 이후 신규 지원 개시

참석자들은 앞으로도 홈플러스 영업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, 근로자·협력업체의 생계·경영 안정 등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.

<총괄>	재정경제부 자금시장분석과	책임자	과 장	박언영 (044-215-2740)
		담당자	사무관	신승헌 (happyhoney@korea.kr)
	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	책임자	과 장	지영철 (044-202-7404)
		담당자	사무관	최서현 (snhy11@korea.kr)
	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	책임자	과 장	안원호 (044-204-7821)
		담당자	사무관	이길영 (kudos@korea.kr)
	산업통상부 유통물류과	책임자	과 장	조근상 (044-203-4380)
		담당자	사무관	이정훈 (cyber iee@korea.kr)
	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	책임자	과 장	박정원 (02-2100-2920)
		담당자	사무관	이수민 (soolee22@korea.kr)
	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	책임자	국 장	이성희 (02-3145-8370)
		담당자	팀 장	석재승 (corest1@fss.or.kr)